

---

---

# 梵魚寺 雍正6年銘 銅鐘研究

최춘욱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

---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범어사 동종의 미술사적 의의 |
| II. 雍正6년명동종 현상과 조성양식 | V. 맺음말              |
| 1. 현상                | 참고문헌                |
| 2. 조성양식              | 국문초록                |
| III. 鑄鐘匠 金成元과 그의 作例  | Abstract            |

## I. 머리말

범어사는 의상의 창건설에 의한 개창연기도 전해지나 실제로는 화엄십찰의 하나로 신라 흥덕왕 때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창건된 사찰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범어사는 국가의 거찰로 명맥을 유지해오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후 17세기부터의 중창 불사에 의해 여러 건물들이 중건되었다. 특히 1700년(숙종26)에는 明學大師에 의해 鐘樓가 건립되었는데 그곳에는 현재 조석예불에 사용되는 범종, 범고, 목어, 운관 등 불교의식법구가 봉안되어 있다<sup>1)</sup>.

---

1) 불교에서 종교적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소리 내는 일체의 용구를 梵音具라 하고 그 중 종은 堂外의 종루에 걸어 놓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는 청정한 佛寺나 梵刹에서 사용하는 종을 범종이라고 한다. 범종은 洪鐘, 浦牢, 鯨鐘, 巨鯨, 釣鐘, 撞鐘 등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종루의 대표적인 불교공예품인 범종은 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집합시킬 때 혹은 의식을 행할 때 타종하는 범구이다. 또 한편으로는 범종을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친다고 하는데 그 기원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鐘<sup>2)</sup>은 외형적으로 유사한 중국의 고동기인 甬鍾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해져 사찰의 불교의식범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 우리나라 범종 중 가장 오래된 조성 연대를 지닌 725년의 상원사 종에서 한국 범종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종의 양식은 천판 위에 單龍으로 된 龍鈕와 함께 音筒이 있고 鐘肩의 上帶와 鐘口의 下帶 및 鐘身에 4개의 蓮廓과 비천상 등이 조형되어 있는 등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이후 우리나라 범종의 양식은 독창성을 지닌 채 계속적으로 주성되어 오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간혹 전통종 양식을 지닌 종도 주성되기도 하지만 고려말 원나라의 영향에 의해 중국종 양식이 가미된 혼합형 범종이 많이 제작되어진다. 조선시대의 중국종 양식이 반영된 범종의 특징으로는 전통형 종 양식에 음통이 없어지고 한 마리의 용뉴가 雙龍으로 표현되는 것과 종신에 撞座가 사라지고 상대와 떨어진 연곽이 종신의 한 가운데에 장식되는 등의 양식적인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나름의 종

---

또 크기에 따라서 半鐘, 晚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대부분 통틀어 범종이라고 부르며 특별히 유형별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이호관, 1989, 『범종』, 대원사, 63쪽

- 2) 우리나라에서는 '鍾'자와 '鐘'가 혼용되고 있는데 '鍾'자는 『三國遺事』 「탑상」 편을 비롯하여 성덕대왕신종의 명문과 무수한 鍾記,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3580 회나 등장하는 반면에, '鐘'자는 상원사종 鍾記와 『朝鮮王朝實錄』에 300회 정도 나오기 때문에 '鍾'자가 더 합당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鐘'로 표기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성림, 143쪽

양식이 혼재된 혼합형 종 양식이 많아지는 조선시대의 범종 또한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 동종과 이후의 조선후기 동종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특히 조선전기 동종의 경우 연곽과 보살상 등의 표현에서는 전통형 종 양식의 계승이라는 여운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쌍룡이라든가 종신 한가운데에 둘러진 용기횡선대 및 종구 위쪽 파도문의 시문 등에서 앞 시대와 구별되는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조선 영조 4년인 옹정6년(1728)에 범어사 동종은 조선후기 혼합형 범종의 모본이자 주종장 김성원이 김선봉과 함께 주성한 종이다. 더욱이 범어사 동종은 부산지역에 현존하는 범종 중 가장 조성시기가 앞서는 동종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찰의 범종으로는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sup>3)</sup>. 다만 현재까지 소수의 글에서 이 범어사 동종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범어사 동종만을 다룬 자세한 연구가 없어 그 특성과 의의를 명확히 살펴볼 수 없는 실정이다<sup>4)</sup>. 이에 범어사 동종의 문화재지정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담당하였던 필자가 이 지면을 빌어 이 동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동종의 현상과 양식을 언급한 후 종을 만든 주종장과 그 작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 동종이 차지하고 있는 미술사적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범어사 동종에 관련된 더 많은 사료의 발굴과 함께 좋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래본다.

3) 범어사 옹정6년명동종은 2008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이 글의 본문에서는 범어사 옹정6년명동종을 간략히 범어사 동종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4) 범어사 동종과 관련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채상식 외, 1994, 『범어사』, 대원사와 최응천, 1998, 「18세기 梵鐘의 樣相과 鑄鐘匠 金成元의 作品」 『美術史學誌』 2집, 국립중앙박물관 및 곽동해, 2006, 『범종』, 한길아트 등이 있으나 대부분 개략적인 설명서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 Ⅱ. 용정6년명 동종의 현상과 조성양식

### 1. 현상

범어사鐘樓에 매달려 있는 이 동종은 높이가 127.0cm, 鐘口의 지름이 92.5cm인 규모가 제법 큰 범종이다(그림 1). 이 동종의 전체적인 형태는 낮은 丘陵形의 天板 정상부에 조형된 雙龍의 龍鈕와 함께 鐘身이 鐘口 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넓어지는 원만한 곡선을 지닌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범어사 동종의 그 크기와 세부 규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범어사 동종의 규격

鐘高	127.0cm	鐘口~鐘肩 高	96.0cm
天板~頂上部 高	31.0cm	龍鈕 高	24.1cm
天孔 徑	2.2cm	天板 高	6.7cm
天板 徑	61.7cm	蓮廓	23.2×22.9cm
蓮蕾花文座 徑	4.6cm	蓮蕾 高	0.7cm
蓮蕾 徑	2.0cm	菩薩像 高	31.5cm
菩薩像 頭光 徑	10.4cm	殿牌 高	24.8cm
殿牌 蓋部 幅	11.6cm	殿牌 身幅	7.6cm
殿牌 額內廓	3.6cm	銘文帶 高	5.1cm
銘文 幅	5.1cm	銘文 字徑	2.0cm
鐘口 徑	92.5cm	鐘口 厚	7.0cm



<그림 1> 범어사 용정6년명동종

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범어사 동종의 천판 정상 부 용뉴에는 여의주를 문 두 마리의 용이 대칭적으로 앞 쪽 두 발을 천판을 움켜 쥐 듯 버틴 채 서로 몸체를 엉키게 결합시킨

후 다시 정상의 보주를 권 모습으로 구조되어 있다. 특히 쌍룡은 왜소하게 표현된 몸체와는 달리 뿔, 수염, 입 등의 머리 부분 조각의 조형미가 뛰어나며, 다소 과장되게 몸체에서 ‘ㄱ’로 뻗어나와 4爪로 바닥을 움켜쥔 높다란 발톱의 표현 등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완만한 圓弧를 이루며 구름되어 있는 천판 상면의 쌍룡 양 발 사이에는 직경 2.2cm 크기의 音孔 하나가 뚫려 있고, 용뉴 둘레 4군데에는 마치 卦의 형태처럼 장방형의 구멍 흔적이 있다. 음공은 전통형 종의 音筒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4개의 구멍은 주물 구멍 흔적으로 파악된다. 천판 가장자리와 종견이 맞닿은 곳에는 몰딩 처리된 2條의 隆起橫線帶를 돌린 후 그 아래에 상대의 표현 없이 2조 圓圈 속의 15개 梵字文이 양각되어 있다.

종신 한 가운데의 蓮廓에는 短斜線의 빗살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연곽 내부에는 鋸齒文 형태의 花文座 9개를 마련한 후 각각 가운데에 돌기된 蓮蕾를 조출하고 있다<sup>5)</sup>. 각 연곽 사이의 종신 여백에는 左向한 채 합장한 원형 두광을 지닌 菩薩立像 4구가 배치되어 있고, 한 곳에는 ‘主上殿下壽萬歲’라고 적혀진 殿牌 장식의 새겨져 있기도 하다. 종신의 하부에는 하대의 표현이 없는데 종구에서 위로 올라간 18.5cm 지점에 1조의 용기횡선대를 돌리고 있어 마치 하대처럼 보인다. 1조 용기횡선대 위로는 5.1cm

5) 통일신라시대부터 범종의 종신에는 4개의 廓을 만든 후 그 속에 각각 9개씩의 鐘乳를 표현하고 있다. 이 종유는 그 형상이 마치 연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연꽃 봉우리 즉, 蓮蕾로 파악하여 최근에는 종유라는 명칭 보다 연뢰라는 명칭으로 흔히 불려지고 있다. 실제로 범어사 동종에서도 돌기된 표면에 따로 구획된 선들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 또한 일본종의 꼭지형 장식에서 붙여진 종유라는 명칭 대신 불교의 의식법구인 우리의 범종에서는 연뢰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 그 연뢰를 감싼 乳廓 또한 蓮廓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높이의 명문판을 형성한 후 명문을 새겨놓고 있는데 필자가 직접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하여 파악된 명문은 다음과 같다.

「雍正戊申十一月日

咸安餘航山大寺

重八百斤

時僧統 □彦

三綱 巖淑 敏性 休閒

書記 冠□

老德

持(殿) □□

黃蜜施主 雷軒

施主秩 爾岩 釋卞 裕淨 雷□ 通能 最□ 學聰 會一

供養主 日熙 自行 灵俊

別座 德僅

都監 化□

緣化秩 片手 通政 金成元 通政 金善奉 申□灵 鄭乙同 金成善 金貞

前化主 懷監」

"옹정 무신년 10월일 함안 여항산 대사에서 무게 8백근의 종을 주조하였다. 당시의 승통은 □언이며, 삼강은 암숙과 민성, 그리고 휴한이고, 서기는 관□이며, 노덕은 持(殿) □□이다. 황밀을 시주한 이는 뇌헌이며, 시주질로는 이암, 석변, 유정, 뇌□, 통능, 최□, 학충, 회일 등과 공양주로는 일조, 자행, 영준, 그리고 별좌는 덕근, 도감은 화□이다. \_\_\_연화질로는 편수인 통정 김성원과 통정 김선봉, 그리고 신□령, 정을동, 김성선, 김정이며, 전화주는 회감이다."

즉, 범어사 동종은 명문에 의해 雍正 무신년(1728) 11월에 무게가 8백 근인 종을 주조하여 경남 함안 여항산의 大寺에 施納 되었음(그림 2)<sup>6)</sup>과, 동종을 제작한 이는 私匠 金成元和 金善奉 등 6명이며, 종의 주조 방법으로는 蜜蠟鑄造<sup>7)</sup>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명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림 2> 범어사 동종 명문 부분

- 
- 6) 그림 2에서처럼 '威安 餘航山 大寺'라는 명문을 최응천은 '威安 餘般山'의 大鐘으로 보았고, 광동해는 1728년에 주조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雍正戊申'을 '雍正戊戌'이라고 하는 등의 명문 판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글쓴 이들의 오류로 보인다. 함안 여항산 大寺는 1757년부터 1765년까지 펴낸 『輿地圖書』에는 여항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이며 향교 전담의 한 골짜기가 바로 그 터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폐사된 절이다.
- 7) 범종의 주조 방법은 크게 沙型鑄物法과 蜜蠟鑄造로 구분되는데, 밀랍 주조법의 경우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주조 기술이다. 우리나라 범종에서 보이는 龍頭의 웅건한 모습이나 화려한 문양의 표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밀랍 주조가 사용되었다고 하며, 그 제작 공정에 대해서는 최응천·김연수, 2003, 『금속공예』, 술, 100~104쪽



## 2. 조성양식

범어사 종루에 걸려있는 동종은 조선 영조 4년(1728)인 조선후기에 제작된 범종이다. 따라서 범어사 동종은 전통형 종 양식에 종의 외형이 종구 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경향과 함께 종신에 보살상과 전패 및 명문이 장식되는 혼합형 종 양식을 지닌 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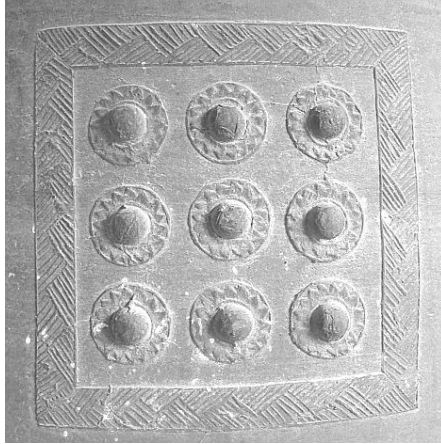
<그림 3> 천판과 용뉴

먼저 범어사 동종의 천판은 圓弧形에서 조선시대 일반적인 형태인 丘陵形으로 바뀌어 있다. 천판 위의 쌍룡은 직각으로 꺾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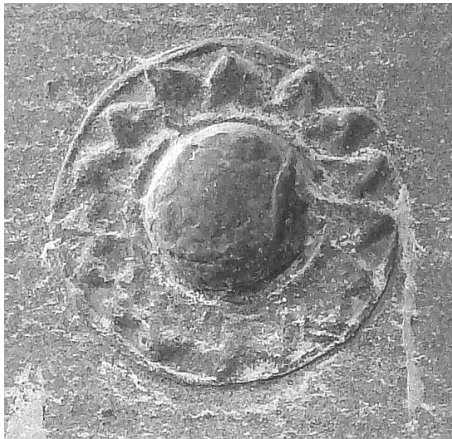
앞 다리와 함께 발톱을 높게 하여 천판을 누르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범종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으로 과장된 표현력에 비해 경직된 시대적 양식으로 보인다(그림 3). 또한 용머리가 천판에서 떨어진 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010년의 天興寺 종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鑄鐘匠 김성원이 주성한 범종의 용뉴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천판에는 조그마한 구멍 1개와 꺾 모양의 4개의 흔적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범종에서 많이 간취되는 것으로 音筒 대신 퇴화된 양식의 音孔을 만든 것과 주물 흔적으로 파악된다. 특히 천판에 뚫려 있는 작은 음공의 경우 타종할 때 종소리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이거나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어 명확하지는 않다.

천판 가장자리와 종견이 맞닿는 종신 상부에는 '옴'자를 중심으로 15자를 조출하고 있다. 범자문은 고려 후기 종에 속하는 1222년의 포항 吾魚寺 종에 '六字光明眞言'이 처음 새겨진 이후<sup>8)</sup> 소수의 고려 후기 종에 등장하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종에 범자문이 시문되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 범종 중 18세기의 종에서는 36자의 광명진언 가운데 순서없이 6자만을 발췌하여 의미없이 나열하거나 그 수효가 8자, 19자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하며, '옴'자 하나만을 반복 시문한 예가 많아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15자가 새겨져 있다.

8) 최응천, 2009, 「吾魚寺의 佛教工藝品」『聖寶』2,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52~60쪽



<그림 4> 연곽



<그림 5> 연뢰

범어사 동종의 종신에는 4개의 蓮廓과 그 사이마다 1구씩 4구의 菩薩立像이 배치되어 있다. 연곽은 정방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빛살문을 거치문 형태로 장식한 연곽대와 마치 톱니바퀴처럼

표현된 花文座 속 돌출된 蓮蕾가 장식되어 있다.(그림 4)(그림 5) 조선후기 범종에서의 연곽대 속의 문양은 인동덩쿨무늬가 가장 일반적으로 시문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인동덩쿨무늬가 1716년에 조성된 證心寺銅鐘에서 파도문 형태로 변형되었다가 1722년 維摩寺銅鐘에서는 더욱 형식화된 후 범어사 동종에서는 거치문 형태에 내부를 빗살문으로 채운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이처럼 범어사 동종에서 연곽대의 빗살문이라든가 꽃잎을 날카롭게 새기는 화문좌의 형태는 앞 시대에 제작된 범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김성원만의 개성적인 시문 표현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범어사 동종에서의 보살상은 원형 두광에 좌측으로 몸을 비스듬히 돌린 후 합장한 후 서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종신에 보살상을 등장하는 양식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종신의 여백에 奏樂天人像이나 飛天像 혹은 불, 보살상을 장식하는 전통이 조선시대에는 거의 보살상으로 한정된 채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조선시대 범종에서의 보살입상이 표현된 작품으로는 15세기에 4점, 16세기에 2점, 17세기에 26점, 18세기에 53점에 이른다<sup>9)</sup>. 다만 범어사 동종의 보살입상은 큰 얼굴에 비해 신체 비례가 떨어지고 가슴 부위에서 합장한 손과 얼굴 등의 세부표현이 앞 시대의 동종 보살상 양식에 비해 형식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 즉, 左向한 채 합장하고 있는 보살상은 원형 두광을 짝 채운 보관, 안면의 눈, 코, 입의 윤곽과 합장한 손 등을 영성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몸을 감싼 범의는 마치 불화 초본 속의 필선처럼 반복적이고 도식적인 선으로 의습이 처리되어 있다. 또한 종신 1개소에 새겨져 있는 전패는 연꽃으로 표현된 대좌와 '主上殿下壽萬歲'라는 장방형의 명문곽, 그리고

9) 廉永夏, 1988, 「韓國梵鐘에 관한 研究」『梵鐘』11호, 한국범종연구회, 38~95쪽

개부를 갖춘 형태이다(그림 7). 조선후기 범종의 전파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장식되기 시작하여 거의 대부분의 종에 시문되고 있는 양식이기도 하다.



<그림 6> 보살입상



<그림 7> 전패

범어사 동종의 종구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인 종신 하부에는 1조의 용기횡선대를 돌린 후 그 위에 명문판이 자리잡고 있다. 범종의 종신에 별도의 꺾으로 짜여진 명문판을 두는 것은 833년에 제작된 일본 조구진구<常宮神社>에 소장된 蓮池寺 종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명문판은 고려시대 범종의 새로운 양식으로 정착된 후<sup>10)</sup> 조선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양식이다. 이

10) 최응천, 2007, 「日本에 있는 韓國梵鐘」『다카하라 히미코 기증 고려범종』, 국립문화재연구소, 56~63쪽

종신의 명문대에 새겨진 명문들은 종을 주성한 연대뿐만 아니라 범종의 제작에 관여한 장인과 그 계보 및 범종의 양식 연구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어사 동종은 구릉형의 천판 위에 가냘프게 조형된 쌍룡 및 종신의 빗살문 연곽, 그리고 보살입상, 전패 등이 양각되어 있는 조선후기 동종 양식이다. 특히 이 동종은 높이가 127cm에 이르는 등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는 제법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또한 당좌 및 하대의 문양이 없어지는 등 조선후기 범종의 특징이 나타나는 점에서 조선후기 범종의 양식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Ⅲ. 鑄鐘匠 金成元과 그의 作例

범어사 주종한 김성원은 1694년의 實相寺鐘을 제작한 金尙立의 아들임이 순천 선암사의 仙巖寺康熙39年銘銅鐘과 영광 불갑사의 佛甲寺康熙41年銘鐘, 그리고 고성 옥천사의 玉泉寺康熙47年銘鐘 銘文에서 밝히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김성원은 私匠系에서 널리 알려진 부친인 김상립의 주종 기술을 전수받아 가업을 계승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鑄鐘匠 김성원의 범종 작품을 제작연대에 따라 열거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11) 선암사강희39년명동종의 '金尙立子 金守元 都片手 金成元 副片手 金孝建 成允弟 金還泰……'라는 명문과 불갑사강희41년명종의 '金尙立子三 金水元 金成元 片手 金成奉……'라는 명문 및 옥천사강희47년명종의 '全羅道 金尙立子片手成元兩主刻手道熙'라고 새겨진 명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범종 형·색·감』3, 문화재청, 106쪽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韓國의 梵鐘』, 국립문화재연구소, 388쪽

〈표 2〉 김성원의 범종 작품<sup>12)</sup>

명 칭	제작연대	소재지	제작자	비 고
仙巖寺康熙39年銘銅鐘	1700	전남 순천(선암사)	金守元, 金成元, 金孝建, 金暹泰	高 122.4cm
佛甲寺康熙41年銘鐘	1702	전남 영광(불갑사)	金水元, 金成元, 金成奉	高 77.5cm
玉泉寺康熙47年銘鐘	1708	경남 고성(옥천사)	金成元, 金善奉	高 67.5cm
元曉寺所藏萬壽寺梵鐘	1710	광주(원효사)	金成元, 金善奉	高 86cm
梵魚寺雍正6年銘銅鐘	1728	부산(범어사)	金成元, 金善奉	高 127cm
華嚴寺九層庵鐘	1728	전남 구례(화엄사)	金成元	高 67.8cm
仙巖寺應眞殿鐘	1737	전남 순천(선암사)	金成元	高 55.1cm

선암사강희39년명동종은 숙종 26년(1700)에 전라도 순천부 조계산 선암사에 8백근으로 대종을 改鑄하였다고 하는데, 선암사 종루에 걸려 있는 이 종은 사내에 현존하는 5구의 종 가운데 가장 크며 보물 제1558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8).

선암사동종의 양식은 낮은 구룽형의 천판 위에 쌍룡의 용뉴가 있고 종구로 내려오면서 점차 벌어지는 외형을 지닌 양식이다. 또한 종신의 상부에는 원권 속에 큼지막한 범자문이 포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연곽과 함께 보살입상과 전패가 있으며 하부에는 명문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어 중국종과 우리나라의 전통형 종의 양식이 혼재된 혼합형 종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12) 범종의 명칭은 먼저 문화재지정 명칭에 의거하였고 나머지는 제작연대와 소재지를 붙여 명명하였다.



선암사종은 쌍룡의 용뉴와 연곽, 보살상 및 왕실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가 담긴 전패 등 그 형태가 조선후기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범종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암사종을 주조할 때 김성원은 都片手였으며 또한 그의 아우 김섬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김상립이 중심이 된 私匠系에서 부친의 주종 작업을 계승하였던 김성원은 그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암사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선암사강희39년명동종



<그림 9> 불갑사강희41년명종

1702년에 주조된 불갑사강희41년명종은 현재 전남 영광의 불갑사에 소장되어 있지만 원래는 獅子山 鳳林寺의 종이라고 한다 (그림 9). 이 종은 외형상 선암사종과 유사하지만 선암사종에 비해 1/2가량 축소된 크기이며 천판에는 영성하게 간략화된 單龍과 音筒이 표현되어 있다. 종신에는 있어야할 4개의 연곽이 생략된 채 신체 비례가 짧고 경직되어진 자세에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의습을 지닌 보살의 大衣 주변에 지느러미 형태의 장식이

있는 17세기 후반부터 흔히 묘사되고 있는 帝釋·梵天形 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다. 따라서 불갑사종은 전통형 종 양식에서 다소 변형된 양식의 종을 김상립의 아들들인 김수원과 김성원, 그리고 김성봉이 본격적인 범종 제작에 앞서 완성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림 10> 옥천사강희47년명종

옥천사강희47년명종은 1708년에 주조된 종으로 현재 경남 고성 연화산 옥천사 대웅전에 소장되어 있는 중형의 범종이다(그림 10). 김성원과 김선봉이 제작한 이 종은 1700년의 선암사종처럼 약화된 쌍룡의 용뉴가 천판 위를 움켜쥐는 듯한 자세로 장식되어 있으며 종신 상부에는 작은 형태의 범자문이 들려져 있다. 특히 종신 중앙에 4개의 연곽을 크게 배치하고 하고 있는데 빗살문인 연곽대 문양을 거치문 형태로 엇갈리게 시문된 것과 불갑사종처럼 합장 형태에 좌향한 제석·범천형의 보살상의 표현은 이후 김성원 범종의 특색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김성원은 1700년의 선암사동종과 불갑사종까지는 형제인 김수원과 김효건 등과 함께 참여하고 옥천사종부터는 독립된 鑄鐘匠 혹은 김선봉의 조력을 받으며 작업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성원은 선암사동종을 제작할 때에는 都片手였으며 불갑사종을 제작한 이후에는 거의 주종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원효사 소장 만수사범종은 1710년에 담양 秋月山 萬壽寺라는 절의 종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명문에서 밝히고 있으나 언제 원효사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sup>13)</sup>(그림 11). 혼합형 종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원효사종은 종신에 비해 더욱 왜소해진 모습으로 천판을 딛고 선 쌍룡이 각각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부에 다시 여의주를 장식한 후 서로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 이 종 역시 옥천사종처럼 종신에는 범자문이라든가 연곽, 보살상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 독특하게 연곽과 보살입상 사이에 '主上三殿下'라는 글을 양각으로 새겨놓고 있다.

13) 원효사 소장 만수사범종의 종신에는 '康熙四十九年庚寅四月日秋月山萬壽寺大鐘鑄成也'라는 명문과 함께 '匠人秩 金成元 金善奉'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림 11> 원효사 소장 만수사 범종

김성원이 1728년에 제작한 범어사 동종의 경우 명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함안의 여항산에 있었던 큰 절의 종으로 주성하였으나 언제 어떤 연유로 범어사로 이운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동종은 만수사종의 외형뿐만 아니라 쌍룡의 형태라든가 보살입상의 모습 및 연곽과 명문대 등의 시문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어사 동종에서는 쌍룡의 용뉴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종견 상부에 둘러져 있는 범자문이 정돈된 채 배치되어 있는 점이 만수사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범어사 동종은 정방형으로 구획한 빗살문 연곽의 배치라든가 종구에서 조금 올라온 지점에 용기횡선대를 돌린 후 그 위에 명문판을 정리한 표현 방식 등에서 김성원이 이 종에 이르러 주종 기술의 완숙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2> 화엄사 구층암 종

범어사 동종과 같은 해에 만든 화엄사 구층암 종은 범어사 동종의 절반 크기의 중형 종이다(그림 12). 원래 화엄사의 內院庵에 시납되었던 이 종은 김성원이 독자적으로 주성한 범종이기도 하다. 종의 외형이라든가 쌍룡의 용뉴, 그리고 범자문과 유곽의 장식 및 배치 형태 등은 범어사 동종과 흡사한 점이 많으나 음공이 천판 한 가운데에 뚫려 있는 것과 천판 가장자리의 용기횡선대에 세로로 골을 지어놓은 것 및 12개의 범자문에 음자와 흠자 두 글자만 시문한 것, 그리고 종신 하부에 용기횡선대를 돌리지 않은 것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특히 종신의 보살입상의 경우에는 범어사 동종과 달리 신체 비례감과 세부 표현이 정돈되어 있는 우향의 보살입상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선암사 응진전 종

선암사 응진전 종은 1737년인 乾隆 2년에 선암사 증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주종장 김성원이 가장 늦은 시기에 제일 작게 만든 종이다(그림 13). 전체적으로 종신이 짧아진 것에 비해 쌍룡의 용뉴가 크게 장식되어 있으며 범자문이 6개로 듬성듬성 포치되어 있다. 또한 종신 한 가운데를 번갈아 돌아가며 표현되어 있는 유곽과 보살입상은 여타 김성원 범종 양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연뢰 화문좌가 이중 원권 속 복연이라든가 우향의 보살입상이 간략해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등이 이 종이 지닌 또 다른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김성원이 제작한 범종에서는 대체로 아무런 장식이 없는 낮은 구룡형의 천판 위를 움켜쥐듯 과장되게 발톱을 세운 왜소한 쌍룡의 용뉴를 표현한다거나 종 상부의 원권 속 범자문 혹은 종신의 빗살문의 연곽과 합장한 도식화된 보살입상을 그냥 의무적으로 시문하고 있는 등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김성원은 앞 시대의 범종과 비교하여 양식적으로 다소 떨어지는 주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아주 걸출한 주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세기 전반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김성원은 私匠이었던 부친 김상립의 주종 기술을 계승하여 1700년의 순천 선암사동종, 1702년의 영광 불갑사종, 1708년 고성 옥천사종, 1710년의 광주 원효사 소장 만수사종 등을 주성한 대표적인 주종장이다<sup>14)</sup>. 이어서 1728년에는 김성원이 범어사 동종과 화엄사 구층암 종을 주성하고 있으며 1737년에는 선암사 응진전 종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친이었던

14) 현존하는 조선후기 범종은 17세기 종이 약 30여점, 18세기 60여점, 19세기 10여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18세기 전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김성원이 7점의 동종을 주종하고 있기에 18세기 私匠系의 대표적인 주종장으로 알려져 있다. 廉永夏, 1988, 『앞의 책』 38~95쪽



김상립과 함께 실상사종을 만들었던 金善奉이 불갑사종과 범어사 동종을 주조할 때 계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아마도 김성원의 부친인 김상립이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에 전라도 일대에서 주종 분야의 私匠系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首匠이었고, 그 뒤를 이은 아들의 작업에 김선봉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IV. 범어사 동종의 미술사적 의의

범어사 동종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인 1728년에 주종장 김성원이 주조 기술의 완숙미 속에 제작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어사 동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범종 양식의 전체적인 흐름과 함께 주종장 및 이 종이 지닌 미술사적 의의를 간략히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범종은 통일신라시대에 독자적인 양식의 종들이 주성된 후 고려시대까지 그 전통형 종 양식이 계승되다가 14세기 고려말에 이르면 외래 양식이 유입되어진다. 특히 범종을 포함한 불교미술 분야에 원나라 미술 양식이 많이 가미되기 시작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성 演福寺 종의 경우처럼 1346년에 중국 장인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조선전기인 15세기에는 중국종 양식을 반영한 새로운 요소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 큰 가장 특징이 음통이 없어지고 한 마리의 용뉴가 雙龍으로 표현되는 것과 종신에 당좌가 사라지고 상대와 떨어진 연곽이 종신의 한 가운데에 배치되며 범자문의 시문과 함께 합장한 보살상의 장식 및 주종장 등의 명문

이 새겨지고 있다. 즉, 15세기 범종에는 종신에 9개의 연뢰가 표현된 4개의 연곽과 함께 보살입상을 장식하고 있거나 일부 종에서 고려 후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범자문이나 六字光明眞言이 조출되어 있는 것 등의 전통형 종의 양식과 쌍룡의 용뉴라든가 불룩한 천판의 가장자리의 연곽문, 종신 한 가운데의 용기횡선대, 종구 위쪽 부분에서의 파도문 시문 등의 중국종 양식이 혼재된 양식의 혼합형 종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원호형 천판에 단룡의 용뉴와 음통이 다시 등장하고 고려후기 범종 양식인 입상대가 표현되는 등 전통형 종이 재등장하는 현상도 보여주기도 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조선후기 중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혼합형 종과 전통형 종이 서로 양립하면서 완전히 정착된 후 발전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전란에 의해 소실된 사찰들이 중건 불사를 하게 됨에 따라 의식범구였던 범종의 수요가 요구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범종의 수요와 함께 주종장들의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조선전기에는 官營手工業者인 官匠에 의해 주도된 것에 반해 조선후기에는 승려인 僧匠과 自由手工業者인 私匠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승장은 17세기 전반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반면 사장들은 17세기 전반부터 19세기까지 크게 활동하였는데 특히 사장들은 특정 지역을 연고로 하여 주종 사업을 개인 사업화하는 등 꾸준하게 활동을 하였다<sup>15)</sup>.

17세기 중엽에 전라도에서 활동한 金龍岩의 경우 조선후기 私匠系의 대표적 주종장으로서 그가 주성한 1644년의 담양 龍興寺

15) 金秀賢, 2008, 「朝鮮後期 梵鍾과 鑄鐘匠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범종은 독창적인 조형요소를 지닌 조선후기 뛰어난 범종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6)</sup>(그림 14). 즉, 용흥사 범종에는 4마리의 용이 서로 엮혀 있는 우리나라 범종에서 유일한 형태의 용뉴가 있고 또한 천판에 13장의 연판문과 함께 원권 범자문이 시문되어 있는 등 독특한 조형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 문양들은 섬세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14> 용흥사 범종

16)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6, 『앞의 책』1, 196~207쪽



그

<그림 15> 흥국사 강희4년명 동종

17세기 후반에는 思印比丘와 같은 유명한 승려 장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점차 승장들은 사라지고 있는데 비구와 쌍벽을 이룬 私匠으로는 金愛立이 있다<sup>17)</sup>.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김애립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1665

17) 僧匠 思印比丘에 관해서는 安貴淑, 1988, 「朝鮮後期 鑄鐘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佛敎美術』9輯, 東國대학교박물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私匠 金愛立에 관해서는 崔應天, 1993, 「鑄金匠 金愛立의 生涯와 作品」『美術史學誌』第1輯 麗川 興國寺의 佛敎美術, 국립중앙박물관의 글이 있다.

년의 여수 興國寺康熙4年銘銅鐘에서 보여주다시피 자신만의 섬려하고 창의적인 장식문양을 시문한 혼합형 종을 제작하였다<sup>18)</sup>(그림 15). 당시 흥국사 동종은 혼합형 종의 특징인 쌍룡의 용뉴와 함께 상대와 당좌가 생략된 종신에 범자문, 연곽, 보살상, 전패 및 장문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17세기 후반 역시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장계 유파의 수장이었던 金尙立이 주목된다. 김상립은 범어사 동종을 만든 김성원의 부친으로 1694년의 實相寺銅鐘을 제작한 인물이다<sup>19)</sup>(그림 16). 실상사 동종은 용뉴가 短龍이며 音筒을 갖춘 형식에 종견 부분의 원권 속에 범자문을 돌리고 종신에는 연곽을 배치한 전통형 종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실상사 동종의 종신 하부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의하면 康熙33년인 숙종 20년에 片手 김상립이 鄭七立, 金天守, 金善奉과 함께 주종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김상립과 김선봉의 경우 김성원의 범종 제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주종장임을 앞 장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실상사 동종 양식은 그대로 김성원에게도 계승되었음이 1702년의 불갑사종에서 보여주고 있다. 불갑사종은 김상립의 아들들인 김수원, 김성원, 김성봉이 함께 제작한 종으로 실상사종처럼 음통이라든지 범자문과 보살상의 장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보다 2년 앞서 역시 김상립의 아들들과 김효건, 그리고 김섬태가 주종에 참여한 1700년의 선암사종에서는 쌍룡의 용뉴와 종의 외형이 종구 쪽으로 갈수록 벌어진 중국종의 양식에 범자문이라든가 연곽과 보살상 등이 큼지막하게 시문되어 있어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성원이 처음 만든 종으로 추정되는 선암사종에서 부친인

18)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8, 『앞의 책』3, 62~77쪽

19)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2007, 『앞의 책』2, 285~299쪽

김상립과는 다른 양식의 혼합형 종 양식을 보여주다 1702년의 불갑사종에서는 연곽을 생략한 채 전통형 종 양식을 또한 가미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성원의 경우에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부친 김상립으로부터 전통형 종과 중국종 양식의 범종 구조 기술을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혼합형 종 양식을 지닌 1708년의 옥천사 대웅전 종과 1710년의 원효사 소장 만수사종을 주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실상사 동종

18세기 전반 대표적인 사장계의 주종장으로 성장한 김성원은 1728년에 이르면 혼합형 종 양식을 지닌 범어사 동종을 주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동종은 세부적 양식에서 확인 되듯이 쌍룡의 표현이라든가 연곽의 빗살문 문양, 보살입상의 모습 등에서 김성원의 독창적인 작품 양식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범어사 동종은 현재 김성원이 제작한 범종 작품 중 가장 크며 종의 양식 또한 세련되어 있어 그의 주종 기술의 완성미를 보이고 있는 작품으로 파악된다<sup>21)</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1728년에 주성된 범어사 옹정6년명동종의 현상과 조성양식, 그리고 주종장 김성원의 작품세계 및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조선후기인 18세기에는 갖가지 불사의 하나로 범종 불사 또한 성행한 가운데 이 범어사 동종이 제작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어사 동종은 당시의 범종과 비교할 때 다소 훌쩍 해진 외형과 함께 고개를 들어 앞을 내다보면서 천관을 딛고 서로 결합된 쌍룡의 형태라든가 빗살문의 연곽 속 톱니바퀴처럼 표현된 화문좌 및 합장한 보살입상의 시문 형식에서 김성원만의 독창성이 가미된 범종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신 상부에 둘러져 있는 원권범자문이 잘 정돈되어 있는 점과 종구에서 조

20) 金秀賢, 2008, 『앞의 책』, 68쪽

21) 김성원이 '都片手'라는 匠人 명칭으로 이전을 종을 제작한 것과는 달리 1728년 범어사 동종에 와서는 '片手通政'라는 官階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금 올라온 지점에 용기횡선대를 돌린 후 그 위에 명문판을 정리한 표현 방식에서도 그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이 동종이 등장하기까지의 우리 고유의 전통 양식과 조선시대 나름의 범종 양식들이 서로 복합되어진 채 조성되던 조선후기의 범종에서도 서로 약간의 양식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주종장들은 조선전기와 다르게 승장과 사장들이 활동하였는데 그중 사장들은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면서 주조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등 주종장 세계의 흐름 또한 이 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특히 18세기의 주종을 담당했던 사장들은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개인 사업화함으로써 수많은 범종이 만들어졌다. 그중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의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사장계의 수장 김상립의 유파를 주목되는데 그의 아들인 김성원은 범어사 동종을 주성하는 등 18세기 대표적 주종장으로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범어사 동종이 18세기 전반의 조선후기 동종 양식을 대표하는 범종 작품이라는 것과 이 종을 주성한 김성원은 조선후기 김용암, 김애립과 더불어 私匠系 뛰어난 주종장이었음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경남 함안 여항산 大寺에 봉안되어 있었던 이 종이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범어사로 이운되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무튼 조선후기의 대표적 사장이었던 김성원의 대표적인 범종 작품이 범어사에 유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우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부산 문화재의 자랑거리로 삼아도 좋을 수작의 유물로 생각된다. 아울러 범어사 동종은 현재 조석예불 시에 타종으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보존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속히 진행되기를 요망해 본다.



**【참고문헌】**

- 곽동해, 2006, 『범종』한길아트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韓國의 梵鐘』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 성림
- 金秀賢, 2008, 「朝鮮後期 梵鐘과 鑄鐘匠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문화재청, 2006, 『범종 형·색·감』 1,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 \_\_\_\_\_, 2007, 『범종 형·색·감』 2,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 \_\_\_\_\_, 2008, 『범종 형·색·감』 3,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 安貴淑, 1988, 「朝鮮後期 鑄鐘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 『佛教美術』 9輯, 동국대학교박물관.
- 廉永夏, 1988, 「韓國梵鐘에 관한 研究」 『梵鐘』 11호, 한국범종연구회.
- 이호관, 1989, 『범종』대원사
- 최응천·김연수, 2003, 『금속공예』 슬.
- 崔應天, 1993, 「鑄金匠 金愛立의 生涯와 作品」 『美術史學誌』第1輯, 麗川 興國寺의 佛·敎美術, 국립중앙박물관.
- 최응천, 1998, 「18세기 梵鐘의 樣相과 鑄鐘匠 金成元의 作品」 『美術史學誌』 第2輯, 국립중앙박물관.
- 최응천, 2009, 「湄魚寺의 佛教工藝品」 『聖寶』 2,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 최응천, 2007, 「日本에 있는 韓國梵鐘」 『다까하라 히미코 기증 고려범종』 국립문화재연구소
- 坪井良平, 1975, 『朝鮮鐘』 角川書店.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
2010.11.6	2010.11.29	2010.12.15

## 【국문초록】

범어사 종루에 걸려있는 동종은 종신에 새겨진 명문에서 **옹정6년**인 1728년에 주종장 김성원이 주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범종이다.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범종 중 **조성연대가 가장 오래**인 이 동종은 현재 범어사 **옹정6년명동종**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어 있다. 범어사 동종의 현상은 구릉형의 천판 위에 쌍룡의 용뉴가 있고 종신 상부에는 원권범자문을 돌렸으며, 종신 한 가운데에는 4개의 연곽과 보살입상 및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1개의 전패 및 명문판이 시문되어 있는 **조선후기 범종의 특징인 혼합형 종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범종의 양식적 흐름은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전통형 종 양식이 고려시대까지 계승되어 오다 고려말에 중국종 양식이 유입된 후 조선시대부터는 전통형 종과 중국종 양식이 혼재된 조선시대 특유의 혼합형 종 양식을 지닌 범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후기 범종의 제작에는 개인 수공업자인 私匠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이들에 의해 주종된 종들은 각각 주종장 자신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범어사 동종을 주성한 사장 김성원 역시 김용암과 김애립 등과 함께 조선후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사장계의 대표적인 주종장이었다. 즉, 사장 김성원은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부친 김상립으로부터 주조기술을 습득한 후 이를 바탕으로 1700년의 선암사종, 1702년 불갑사종, 1708년 옥천사 대웅전 종, 1710년 원효사 소장 만수사종을 주성하는 등 18세기 전반에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주종장이었다. 1728년에 이르면 주종장 김성원은 조선후기 혼합형 종 양식을 지닌 범어사 동종을 주성하고 있다. 범어사 동종에서는 천판에서 고개를 들어 앞을 내다보며 서로 결합되어 있는 쌍룡이라든가 빗살문의 연곽과

그 속의 톱니바퀴처럼 표현된 화문좌, 그리고 합장한 채 다소 엉성하게 서있는 보살입상의 모습, 종구에서 조금 올라온 곳에 용기횡 선대를 두른 후 명문판을 정리하고 있는 등 부분적으로 김성원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김성원이 제작한 범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양식 또한 세련되어 있는 등 그의 주종 기술의 완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사장계를 대표했던 주종장 김성원의 작품 1점이 어떤 경로로 범어사에 봉안된 후 유존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범어사 동종은 부산 문화재의 자랑거리인 수작의 유물이기에 앞으로 효율적인 보존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주제어** : 범어사 동종, 범종, 주종장, 김성원, 전통형 종, 혼합형 종, 사장

---

---

### **【Abstract】**

## **A Study on the Beomeosa Temple Ongjeong 6th Year Copper Bell**

Choi, Chun-uk /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Appraisal

---

---

The bell tower of Beomeosa Temple has a copper bell hanged inside. The bell has writings inscribed on the body, which reads it was made by a bell caster named Kim Seong Won in the 6th-year reign of emperor Ongjeong, or 1728. The copper bell

was made earliest among all temple bells remained in Busan. It is called the 'Beomeosa Temple Ongjeong 6th Year Copper Bell and also designated as Tangible Cultural Asset No. 90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copper bell largely consists of round-shaped cheonpan and the body, Cheonpan has two-dragon models decorated on the top or yongnyu. The body has Sanskrit patterns rounded around the upper part and 4 lotus bud patterns mold, an image of Bodhisattva, palatine tablet, which is a symbol to pray for the stability of the dynasty, and the plates of writings or sentence board inscribed around the center. All of these components followed temple bells made in the late Joseon period, collectively called bells of complex style.

Regarding the styles of local temple bells, traditional features seen in temple bells of the Unified Shilla period were unchangeably succeeded to the Koryo Period. But in the late Koryo period, temple bells of Chinese style were introduced. In the Joseon period, since then, lots of temple bells were made in complex style, which wa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foresaid traditional and Chinese styles. In the late Joseon Period, handiwork traders or, accurately, private handicraftsmen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anufacture of temple bells. As bell casters, they made the bells that had some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ir respective personality.

Private handicraftsman Kim Seong Won, who made the cooper bell of the Beomeosa Temple, was one of the most active and representative bell casters of the late Joseon period which included Kim Yong Am and Kim Ae Rip. He learned casting skills from his father Kim Sang Rip who served as a bell caster

mainly in the Jeolla province between the late 17th and 18th centuries. Based on the skills, Kim Seong Won made lots of activities as a bell caster in that province in the early 18th century, making the bells of the Seonamsa Temple in 1700 and the Bulgapsa Temple in 1702, the main building bell of the Okcheonsa Temple and Mansusa Temple bell of the Wonhyosa Temple in 1710. At last, he cast the copper bell of the Beomeosa Temple that had features found in temple bells of complex style dominant in the late Joseon period. As can be seen in the cooper bell, two dragon models on cheonpan which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whose respective head is raised forward, comb-patterned yeongwak shaped lotus buds and hwamunjwa or flower patterns looking like saw-toothed wheels inside yeongwak, the image of Bodhisattva who are a little unnaturally standing up with his hands clasped, a projected horizontal stripe turned around a little above the opening of the bell and sentence board or the plates of writings arranged above the stripe belong to some of the features that are found only in temple bells made by Kim Seong Won. Largest among all temple bells he made and even more stylish, the copper bell of the Beomeosa Temple represents the perfection of his own casting skills.

It still remains unclear how the cast work or the cooper bell made by Kim Seong Won,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rivate handicraftsmen in the Joseon period, actually could be enshrined in the Beomeosa Temple and maintained till present. The copper bell is one of the best cultural assets in which Busan takes the highest pride, so it needs to be preserved and managed in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ways.

Key words : the copper bell of the Beomeosa Temple, temple bell, bell caster, Kim seong Won, bell of traditional style, bell of complex style, private craftsman